

#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강화 방안

한 보 름(대구대학교) · 정 영 숙(대구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였다. 자료는 대구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측정도구에는 가정생활, 직업생활, 학교생활,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과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성별, 연령, 가족유형, 자녀구성 등의 배경에 따라 양성평등의식의 차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학부모들에게 성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가정에서 자원분배를 할 때,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자원분배에 있어 남편에게 좋은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명절 때 친가를 먼저 방문하고, 재산상속을 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상속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혼전 성경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혼전 성경험이 있는 딸의 약혼남과 아들의 약혼녀에 대하여 헤어지라고 하는 응답이 딸의 약혼남의 경우보다 많은 반면 딸의 약혼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아들의 약혼녀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에 비해 대구는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생계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국과 비교하면 남편이 생계책임자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대구가 더 높은 현상은 보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 간의 자원배분 우선순위는 전국에 비해 대구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아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 학부모가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내용으로 ‘남녀의 고정역할에 대한 편견 없애기’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될수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주체성을 확립하여 균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이들 집단의 생활 영역 및 관심사, 당면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범주별 영역으로 구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하는데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다양한 접근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실천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 행동을 직접 실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